

정읍 내장산에 대규모 자연휴양림 조성

시,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사업' 용역 최종 보고회 2023년까지 165억원 투입 숙박·체험시설 등 건립 계획

정읍시가 내장산에 2023년까지 165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정읍시는 지난 26일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중간보고회 때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생 될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지방공약사업 '노령산맥 휴양·치유 벨트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2018년부터 정읍시 용산동 일대에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해 왔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시는 내년에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휴양림은 내장산 입구 용산호 인근에 36ha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숙박시설 25개 동과 복합체험시설, 놀이광장 등도 갖춘다.

이번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휴양림 조성 후 주변 시설과 연계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동선을 연결해 줄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 주차시설 등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과도한 시설투자나



정읍시는 지난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제공)

불필요한 공사를 줄여 그에 따른 예산 낭비나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며 "자연 친

화적이면서 내실 있는 휴양림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2128개 사업장 체불임금 300억 넘어

전주고용노동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독려

전북지역 사업장의 상반기 체불임금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날 기준으로 전북도 내 임금체불 사업장은 모두 2128곳에 달한다.

임금을 제때 받지 노동자는 5733명이며, 누적된 체불임금 규모는 304억6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중 1518곳(71.3%)은 전주에 주소를 둔 것으로 조사

됐다. 전주고용노동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개선지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 청산기동반'

을 운용한다. 재산은닉과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영상 전주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폐염전 부지 395만8800㎡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창군은 심원면과 해리면 일대의 폐염전 부지 395만8800㎡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지는 염전이 폐쇄된 지 25년이 지나 생태계가 상당 부분 복원됐고, 해안과 내륙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어 보존 필요성이 높다고 고창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할 수 없다.

고창군은 이 염전부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고창 갯벌과 인접해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활용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남원시가 시민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 문화 확산에 나섰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사진)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3월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노암동 한신아파트 경로당을 재단장에 만들었다.

신한금융그룹에서 지원한 5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억2100만 원이 투자됐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돌봄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아체육, 종이접기, 보드게임 등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9월부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군, 농촌형 창업 교육 우수자에 초기 자금 지원

순창군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순창 농촌문제 해결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창업 교육을 수료한 우수자에게 창업 초기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최우수 평가를 받아 올해도 진행됐으며, 귀농·귀촌으로 급부상한 순창지역에 지속적인 청년층 유입과 지역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교육 주관 단체인 (사)10년후 순창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고 7명의 교육

생을 최종적으로 선발, 지난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해왔다.

최근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분야별 수료생 7명이 만든 시제품 품평회가 지난 27일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또 이날 시제품 평가에서 최종 우수자로 선정된 2명에게 창업지원금을 전달했다.

최우수상에는 죽공예 분야에 최경수씨, 우수상에는 발효 분야 이종동씨로 이들은 각각 창업지원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LG화학 나주공장, '나사랑 Dream Day'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여명 초청 영화관람·학용품 선물

LG화학 나주공장(공장장 이건주 상무)이 원도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나사랑 드림(Dream) Day' 행사를 진행했다.

LG화학 나주공장은 지난 22일 나주 문화회관에서 지역아동센터 4곳(송월, 중부, 성북, 대호동) 아동을 대상으로 나사랑 드림(Dream) Day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나사랑 드림(Dream) Day'는 LG화학 나주공장의 나사랑운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실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날 참석한 원도심 나주지역 아동센터 아동 100여명에게 영화관람 기회 제공과 학용품을 선물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LG화학 나주공장 임직원들이 모금한 '나사랑 희망기금'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나사랑 희망기금'은 나주공장 전 임직원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모금해 '다문화가정 언어치료', '지역아동센터 후원', '저소득 청소년 교육 지원', '노인정 보일러 설치' 등에 사용해 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송월지역아동센터 김정화씨는 "LG화학 나주공장이 해마다 나주지역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놀이체험을 제공해 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G화학 나주공장은 해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기금 기탁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화학캠프' 실시, 초·중학생 '희망 가득한 도서관' 건립사업, 중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등 나주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LG화학 나주공장장 이건주 상무는 "LG화학 나주공장이 나주시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나주시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이며 나주지역에서 사랑 받고 함께 성장하는 공장을 실현하기 위한 '나사랑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민관학 공동협업체' 출범 1차 회의

천연물 소재·계약산업 허브 발전 기반 구축

순천시가 천연물 소재 및 제약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천연물 소재 및 제약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학 공동협업체가 출범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순천시의 바이오산업 민관학 공동협체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대 혁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지난 7월 전남도 새천년 비전으로 선포한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과제인 블루바이오와 관련해 타 지역보다 우수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시가 바이오산업을 선도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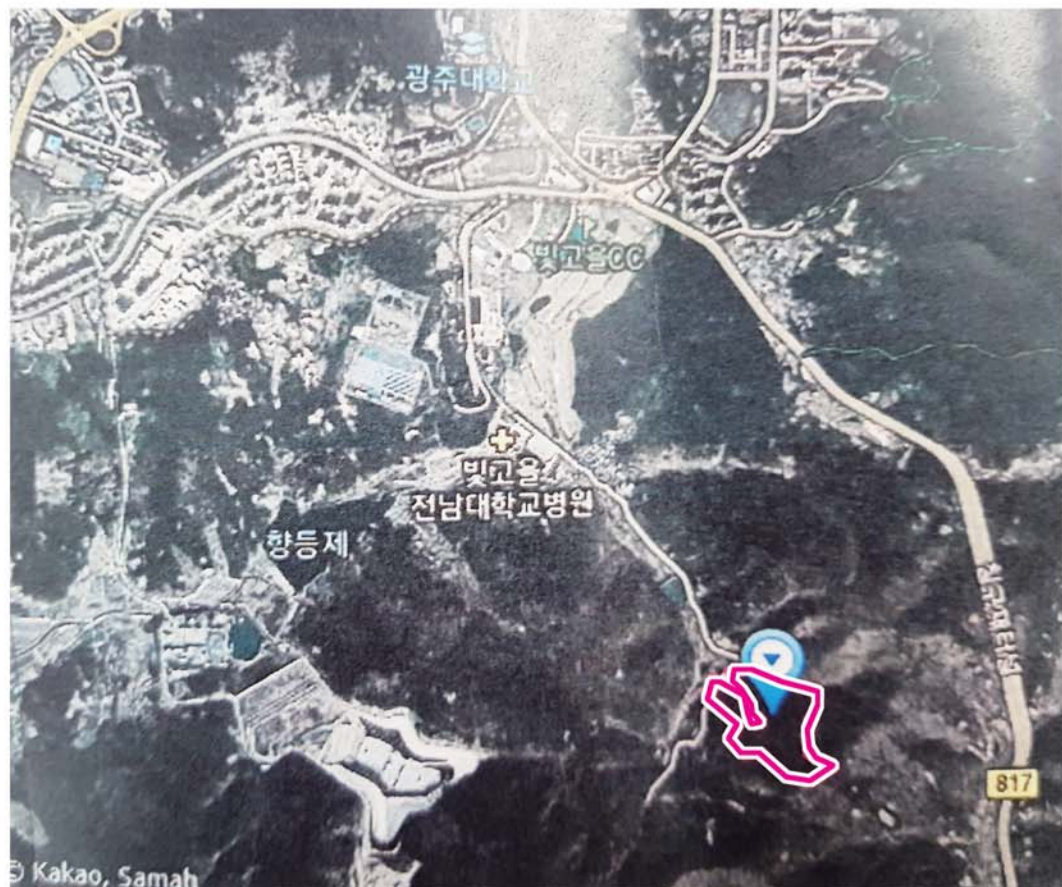
총 11명으로 구성된 협업체는 순천시

와 순천대학교, 동부생약영농조합법인 등 3개 기관장과 관계자로 구성됐다. 1차 회의는 순천대 박기영 대학원장의 기조 발언에 이어 활발한 토론으로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우수한 천연물과 자원을 보유한 순천시와 약학과, 웰빙자원학과, 한약자원학과, 산림자원학과, 원예학과 등 우수 연구 인력을 보유한 순천대학교의 강점을 살려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동부생약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내 1300여 약용작물 재배 농가 등과 연계·협력해 연구, 생산, 판매 활동을 병행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마지막, 600평 싸게 정리합니다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